

ISSN 1227-0180

소년 2024년 부활 특별호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학습지

2024

부활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 3,4)



KC 마크는 이 작품이 조물 창조주께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가톨릭출판사



부활을 축하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친구들, 사순 시기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변의 친구들과도 이 기쁨을 나누도록 해 보아요!

목차

부활을 기다리며

음식 만화(3) 예수님은 요리사! 김준희

만화로 읽는 성인전(17) 교회를 빛낸 성인 송현철

전례 지식

예수님 곁에 초대받은 사람, 복사로 첫걸음을 내디딘 내

재미있는 서양 미술 이야기

축복을 내리시는 성부, 그리고 천사들 박혜원

묵상 만화(55) 복음에 생각 더하기 이윤진

퍼즐 여행 가로 보고 세로 보며 퍼즐 맞춰 봐요

소년에서 알립니다

2

28

52

60

64

68

76

78



사순 제1주일

4

사순 제2주일

10

사순 제3주일

16

사순 제4주일

22



사순 제5주일

34

주님 수난 성지 주일

40

주님 부활 대축일

46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는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간의 사순 시기를 보내요. 사순 시기는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시기인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희망의 시기이기도 해요. 사순 시기의 첫째 날인 '재의 수요일'에는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이 있어요. 재의 수요일 미사에 거행되는 이 예식에 참여하며, 그동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곧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날로 보내 보아요. ✱



찾아보기

재의 수요일 미사에 신부님은 신자들의 이마에 재로 십자 성호를 그어 주세요. 머리를 양쪽으로 뒹고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아녜스도 미사에 참례해 재를 받았어요. 아녜스는 누구일까요?





편지 쓰기

사순 시기를 맞아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편지를 써 보아요.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요? 아래에 써 봅시다.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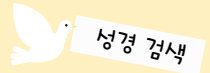
.....



⁸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⁹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¹⁰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¹¹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¹²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¹³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¹⁴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¹⁵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¹⁸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¹⁹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²⁰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여덟 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²¹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 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²²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방주 이야기



#창세기 #노아 #방주 #홍수 #하느님의 심판 #구원 #영광 #새로운 삶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노아의 방주

에드워드 힉스, 1846년, 캔버스에 유채, 필라델피아 박물관, 필라델피아, 미국

노아의 홍수

오늘 제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를 일으킵니다. 이 이야기 속 하느님을 무자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만은 살려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창세 9,11)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며, 자비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은 죄를 반성하며,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시간을 가져 보아요.

방주 이야기

‘방주’는 하느님께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홍수에서 구하기 위해 만들라고 지시하신 커다란 배를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탈 수 있도록 해 주셨기에, 그들은 무시무시한 홍수를 겪고도 무사히 살아 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교에서 방주는 하느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뜻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출발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방주를 세례의 예형이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순종을 상징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어요. ✠



마르 1,12-15



그때에 ¹²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¹³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¹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¹⁵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는 어디에 가셨나요? ①성전 ②호수 ③올리브산 ④광야	2 예수님께서서는 며칠 동안 광야에 계셨나요? ①하루 ②나흘 ③열흘 ④사십 일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을 찾아보아요. 그때에 께서 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 보내셨다. ①성부 ②성자 ③성령 ④마리아
4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 누가 그분의 시종을 들었나요? ①천사 ②사탄 ③제자들 ④들짐승	5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는 누가 잡힌 뒤에 갈릴래 아에 가셨나요? ①요셉 ②요한 ③베드로 ④바오로	6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찾아 적으세요.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만나는 하느님과 의 시간은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치고 하느님께 다가가길 바랍니다. ✱

- + 휴대폰 사용 시간을 줄여요.
- +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시간이 있는지 반성해 보아요.

친구들은 좋아하는 색이 있나요?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는데요. 사실 보라색에 담
긴 의미를 더욱 좋아합니다.

미사에 참례할 때 자세히 보면 신부님
이 입는 제의 색이 계속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신부님들은 사순 시기의 첫
시작인 재의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보라
색 제의를 입습니다. 이 색깔에 ‘회개와 보
속’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
는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간
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
도 사순 시기에 보라색 제의를 입으며 우
리 친구들이 사순 시기를 잘 보내고, 하느
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
록 기도를 드린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번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과 더욱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사랑의 방법을 완성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예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맞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

1.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2. '회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 이번 주에 내가 가장 잘못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4. 그 점을 어떻게 바꾸면 주님 보시기 좋은 착한 어린이가 될 수 있을까요?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아멘.



세바스티아노

신부님, 왜 매년 사순 시기랑 주님 부활 대축일 날짜가 달라지는 건가요? 주님 성탄 대축일은 항상 12월 25일이잖아요.

그건 부활절이 이스라엘의 파스카 축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이 파스카 축제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정하는 '유다력'을 따르는데 파스카 축제가 우리 달력으로는 3~4월에 해당하는 니산 달 14일에 지내거든.

이때 유다인들은 파스카 축제를 위해서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을 맞는 14일 오후에 파스카 양을 잡는단다.



세바스티아노

아, 언젠가 사순 시기 복음에서 파스카 축제 이야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오~ 맞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거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해 파스카 축제가 안식일과 겹쳤는데 예수님께서 그다음 날인 주간 첫날에 부활하셨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춘분이 지나 맞이하는 만월 이후 첫 번째 주일'로 주님 부활 대축일을 보내기로 결정했단다. 그래서 매해 주님 부활 대축일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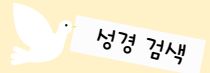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⁹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¹⁰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¹¹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¹²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¹³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덩불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¹⁵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¹⁶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¹⁷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¹⁸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형제 여러분,³¹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³²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³³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³⁴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 #이삭 #번제물 #하느님의 시험 #예수님 #순종 #창세기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제지하는 천사
렘브란트, 1635년, 캔버스에 유채, 에르미타주 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아브라함의 순종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백 살에 얻은 귀한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생각에 몹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러한 고뇌를 떨치고,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갖고 그분께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놓으셨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점

이삭과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외아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외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이삭도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는 데에 사용될 장작을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 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기꺼이 내어 드리는 진정한 '순종'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어요. ✱

마르 9,2-10



그 무렵 ²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³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⁴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⁵ 그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⁶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⁷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⁸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⁹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¹⁰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1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지 않은 제자는 누구인가요? ①유다 ②베드로 ③야고보 ④요한	2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들은 누구인가요?(정답 2개!) ①엘리아 ②이사야 ③모세 ④여호수아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아요. “저희가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아께 드리겠습니다.” ①궁전 ②대궐 ③초막 ④성전
4 변모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①무슨말을해야할지몰랐다. ②겁에 질려 있었다. ③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④ 이 사건을 널리 알렸다.	5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는 언제인가요? ①예수님의 탄생 때 ②예수님의 부활 때 ③예수님의 세례 때 ④예수님의 변모 때	6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①많은 제자를 불러 모아라. ②다른 이들에게 전해라. ③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④지금 본 것을 잘 적어 후대에 전달하여라.

핵심 꼭꼭

제자들은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하고 놀라 겁에 질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체험 덕분에 힘을 얻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힘을 내어 주님을 따를 힘이 생길 것입니다. ✱

- + 예수님과 함께하며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아요.
- +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청하는 기도를 바쳐보아요.

2월 25일 사순 제2주일

친구들, ‘지킨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약속을 지킨다.’, ‘누군가를 지킨다.’처럼 내게 소중한 것을 이야기할 때 쓰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던 높은 산 위에서 그분의 모습이 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하늘의 구름에서는 하느님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아
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
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꼭꼭 마
음에 새겨보기로 해요. 우리를 지켜 주시
는 하느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입
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친구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

1.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나요?
2. 최근에 느낀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3. 이번 주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이 있었을까요?
4. 나의 잘못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지켜 주시는 주님.

아멘.



에스테르

신부님, 지난 주일 미사 때 평소와 달리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하지 않던데요. 혹시 깜빡 잊은 건가요? ㅋㅋ

그럴 리가! 원래 사순 시기에는 '알렐루야'를 하지 않는단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외치는 소리이기 때문이야.



에스테르

근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사순 시기의 의미가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부활 대축일에 더 큰 기쁨을 표현하기 위함이지! ^^



에스테르

그럼 주님 부활 대축일이 오기 전까지 사순 시기에는 주님을 찬양하면 안 되는 건가요?

ㅎㅎ..... 왜 안되겠니? 찬양해도 되지! 알렐루야는 부활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환호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님 부활 대축일 때까지 알렐루야를 하지 않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의 의미를 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자!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탈출 20,1-3.7-8.12-17



제1독서

그 무렵 ¹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²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³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⁷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¹²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¹³ 살인해서는 안 된다. ¹⁴ 간음해서는 안 된다. ¹⁵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¹⁶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¹⁷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¹⁷

1코린 1,22-25



제2독서

형제 여러분, ²² 유대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²³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²⁴ 그렇지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²⁵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계명

#십계명 #자유와 해방으로의 초대 #사랑의 계명 #십계명의 완성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모세와 십계명
필립 드 샤파뉴, 1648년, 캔버스에 유채, 에르미타주 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십계명의 의미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알려 주신 열 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이집트의 지배 아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께서 알려 주신 삶의 가르침이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당신 계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마음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1~3계명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해 주고, 나머지 일곱 계명은 인간 상호 간의 수평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것, 생명을 존중할 것, 부부간에 신의를 지킬 것,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 것, 진실하게 증언할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

십계명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며,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십계명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요한 2,13-25



¹³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¹⁴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¹⁵ 곧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¹⁶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¹⁷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¹⁸ 그때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¹⁹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²⁰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²¹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²²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²³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²⁴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²⁵ 그분께서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1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곳은 어디였나요? ①시장 ②성전 ③학당 ④은행	2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쫓아 내지 않은 사람을 골라 보세요. ①소를 파는 사람 ②비둘기를 파는 사람 ③환전꾼 ④기도하는 사람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아요. 유대인들의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①초막절 ②오순절 ③파스카 ④부활절
4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나요? ①내 아버지의 집 ②기도하는 집 ③가르치는 집 ④장사꾼의 집	5 “이 성전을 허물어라.”라고 하셨을 때, ‘성전’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나요? ①예루살렘 성전 ②예수님의 몸 ③이스라엘 민족 ④제자들	6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나요? ①표징 ②돈 ③명예 ④외모

핵심 꼭꼭

우리 마음은 주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복음 속 장사꾼들로 가득 찬 성전의 모습처럼 내 마음도 욕심, 걱정, 질투, 교만 등으로 어지럽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고해성사를 통해 이런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는다면, 그분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

- +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요.
- + 고해성사를 해요.

3월 3일 사순 제3주일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은 기도도 하고 미사도 봉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분의 집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당에 가는 걸 예수님의 집에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동물을 팔며 장사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깨끗해지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와 친한 친구가 되길 바라세요. 그래서 이번 사순 시기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 친구들인 만큼 예수님께서 고통과 죽음을 견디신 까닭은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해요. 卐

1.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2. 성전 안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나요?
3. 이번 주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4.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드려요.

저희를 위해 어린양이 되신 주님,



사비오

신부님, 저 목이 너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특별히 시원한 성수 좀 마시게 해 주세요~

아니, 요 녀석! 목이 마르면 정수기 물을 마
셔야지! 성수를 마시겠더니?



사비오

앵? 성수도 같은 물 아닌가요?

성수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이란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지.



사비오

흠, 그럼 아예 마실 수 없는 건가요?



당연하지! 성수는 세례를 기억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축복식이나 장례식에도 사용한다. 또한 성스러움을
방해하는 악마 등을 쫓아낼 때 쓰기도 하지. 사비오, 너
성수 좀 마셔야겠다!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2역대 36,14-16,19-23



제1독서

.....²¹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일흔 해를 채울 것이다.”²²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일년이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²³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에페 2,4-10



제2독서

형제 여러분,⁴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⁵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⁶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⁷ 하느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 주려고 하셨습니다.⁸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⁹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¹⁰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바빌론 유배의 교훈

#바빌론 유배 #키루스 임금 #이사야 예언자 #에제키엘 예언자 #희망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포로들의 대이동
제임스 티소, 1896~1902년, 보드에 과슈, 유다인 박물관, 뉴욕, 미국

바빌론 유배

솔로몬 임금이 죽자 이스라엘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유지했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 역시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가 침략할 때 멸망하여 임금과 백성들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를 '바빌론 유배'라고 해요. 이 유배 이후 50여 년이 지나, 페르시아의 키루스 임금이 기원전 539년에 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켰고,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키루스 임금을 하느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배의 교훈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어쩌다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유배를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겼기에 받은 벌로 여겼어요.

에제키엘 예언자와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 끝나면 주님과 새로운 계약이 맺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구원을 실현하는 구세주가 오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에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

요한 3,14-21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¹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¹⁵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¹⁶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¹⁷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¹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¹⁹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²⁰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²¹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1 다음 중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①사람의 아들 ②외아들 ③빛 ④어둠	2 하느님께서는 외아들을 믿는 아들이 무엇을 얻게 하셨나요? ①영원한 생명 ②많은 돈 ③최고의 명예 ④아름다운 외모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①사자 ②개 ③고양이 ④뱀
4 하느님께서는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나요? ①세상을 심판하려고 ②세상이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고 ③세상이 어둠에 물들라고 ④악한 이들만 구원하려고	5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 중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①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②빛이 세상에 왔다. ③악을 저지르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④모세의 이름을 믿는다.	6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왜 빛으로 나아갈까요?

핵심 꼭꼭

우리는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자꾸 뒤로 숨게 됩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일은 친구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지요.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도록 해요. ✱

- +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아요.
- + 식사 전·후에 성호경을 긋고 기도를 해요.

3월 10일 사순 제4주일

친구들, 미사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종소리가 ‘땡’ 하고 울리고 신부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들어 올리시는 순간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이지요.

이 순간과 오늘 복음이 아주 잘 연결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복음 말씀 중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불만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시무시한 불 뱀들이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불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매달면 뱀에 물린 사람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시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불 땀이 들어 올려져서 많은 사람
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매달려 들어 올려지셔서 인간을 구원하십니
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
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게든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듯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를 바라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
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요. 卐

글 임현택(토마스) 신부

1.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2.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나의 행동은 어땠나요?
3. 오늘 복음을 읽고 하느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봅시다.
4.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가든하신 주님,

아멘.



요한

우와! 신부님, 오늘 제의 색깔이 완전 핑크빛이
에요! 그런데 사순 시기에는 보라색 제의를 입
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ㅋㅋ 오늘이 사순 제4주일이지? 이제 주님 부활
대축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는 의미에서 장미색 제의
를 입는 거야. 그래서 이 날을 '장미 주일'이라고도
부른단다.

보라색이 통회와 보속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면, 이 장
미색은 기쁨의 색깔이야. 사순 시기 내내 통회와 보속
으로 고생하는 우리 요한에게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
음을 알려 주는 기쁨의 신호라 할 수 있지!



요한

그럼 오늘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까지 핑크색 옷
만 입으시는 건가요?

아....., 그건..... @_@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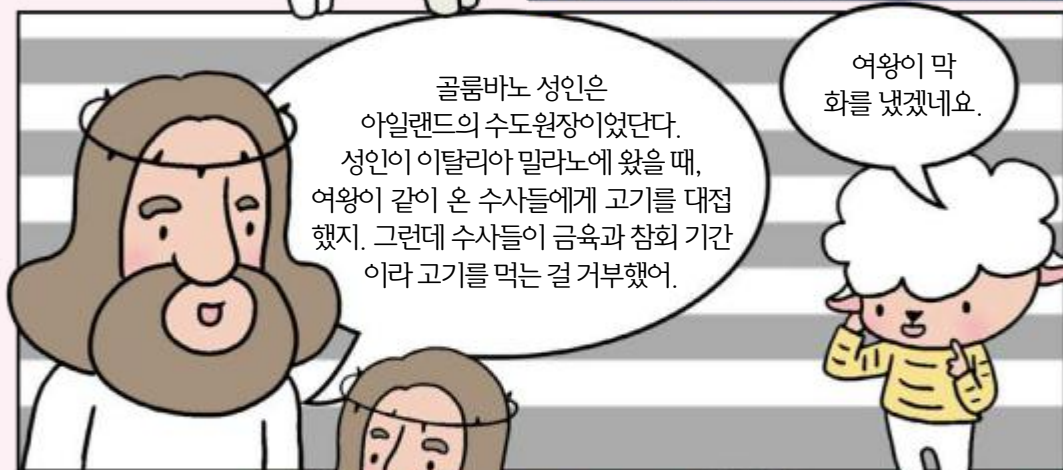
예수님은 요리사!

김준희 지음











밀가루, 버터, 계란, 설탕, 오렌지 껍질과
천연 효모를 넣은 반죽을

비둘기 모양으로 된
케이크 틀에 넣고



오븐에
구우면 끝!

지역에 따라 설탕이나
아몬드를 올려
꾸미기도 하지.

저희는 비둘기 빵을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비둘기 쿠키를
구워 볼까요?



비둘기 모양
틀로 찍은
쿠키나

동그란 쿠키에
비둘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삶은 달걀도 좋고,
쿠키도 좋고~

무엇이든
이웃과 친구들과
나누는 부활절 보내세요!



예레 31,31-34



제1독서

³¹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³²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³³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 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³⁴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히브 5,7-9



제2독서

⁷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⁸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⁹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계약의 시작



#새로운 계약 #예레미야 예언자 #메시아를 기다림 #다윗 임금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렘브란트, 1630년, 나무에 유채,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새로운 계약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빌론 유배 때, 실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심어 줍니다. 이 희망은 그들이 유배지에서 찢값을 치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고향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재독서는 바로 이 '새로운 계약'에 관해 말하고 있어요. 이 계약은 모세의 시나이산 계약과는 다르게, 다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영원한 계약은 바빌론 유배 동안 정지되었으나, 귀환 후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시나이산 계약을 대체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 임금에 대한 예언은 에제키엘서 등에 언급됩니다.

이는 바빌론 유배 후,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군중이 다윗 임금의 후손이신 예수님께 환호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선포한 새 계약이 파스카 이신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요한 12,20-33



복음

²⁰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²¹ 그들은 갈릴래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²²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²³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²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²⁵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²⁶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²⁷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²⁸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²⁹ 그곳에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³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³¹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³² 나는 땅에서 들어 올리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³³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었나요? ①이집트 ②터키 ③프랑스 ④그리스	2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은 누구에게 다가가 그분을 뵈고 싶다고 청하였나요? ①베드로 ②필립보 ③야고보 ④요한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아요. 사람의 아들이 될 때가 왔다. ①영광스럽게 ②사랑스럽게 ③귀엽게 ④아름답게
4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는 누구를 위하여 내린 것이요? ①예수님 ②성모님 ③군중 ④그리스 사람	5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말 씀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 신 것일까요? ①탄생 ②세례 ③수난 ④승천	6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섬기 려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 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작은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은 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작은 친절은 받은 이에게 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작은 일, 사소한 행동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 봅시다. ✱

- + 용돈을 모아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를 해 보아요.
- +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요.

얼마 전에 오렌지를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렌지가 좀 불쌍하다. 이렇게 크려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내가 먹으면 이제 이 오렌지는 죽는 거네…….’

영똥한 생각이었지만, 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렌지 열매가 나에게 먹힘으로써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렌지 열매는 내가 먹어서 죽게 되었지만, 사실 내게 영양분도 주었잖아. 나는 그 영양분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우리 친구들도 오늘 복음에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신을 희생하셔서 기꺼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양분을 받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양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글 임현택(토마스) 신부

1. 내게 좋은 영양분이 되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인가요?

2. 그 사람은 내게 어떠한 좋은 영향(열매)을 주나요?

3.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영양분이 되었던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4. 예수님께서서는 내게 어떤 영양분을 주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참생명이신 주님,

아멘.



소피아

저 어제 복사단 연습을 했는데요. 성삼일 때는 종을 안 친다고 하더라고요. 종 치는 걸 열심히 연습했는데, 좀 서운했어요.

이런, 소피아가 실망한 눈치네. ㅎㅎ 그렇지만 성삼일 때에 종을 안 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단다~

일단!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는 성당 종과 제대 종을 치고, 이후 파스카 성야 미사 때 대영광송을 하기 전까지는 종을 치지 않아. 그 대신 나무로 만든 '딱따기'를 사용해.



소피아

딱따기요? 딱따거리는 소리보다 종소리가 더 좋은데……. ㅠㅠ

딱따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때, 교회의 슬픔을 기념하기 위해서야. 또한 종만 안 치는 게 아니라, 오르간 같은 악기 연주도 성가 반주에만 사용할 수 있단다.



소피아

네! ㅎㅎ 딱따기를 칠 때 돌아가신 예수님을 꼭 기억할게요!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 50,4-7



제1독서

⁴ 주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⁵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⁶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⁷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필리 2,6-11



제2독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⁶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⁸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⁹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¹⁰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¹¹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종’



#주님의 종 #메시아 #종의 모습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사야서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에체 호모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1606년, 캔버스에 유채, 팔라초 비앙코 미술관, 제노바, 이탈리아

고통받는 주님의 종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앞에서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종’을 이야기하는 4편의 노래를 썼어요.

오늘 제독서에는 세 번째로 ‘고통받는 주님의 종’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러러 볼 풍채나 위엄도 없는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속죄 제물로 내놓아 죄값을 치렀음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종’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선포해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종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장 높은 데에서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독서에서는 이를 그리스어로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이라 말해요.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느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종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 고통을 대신 지셨음을 깨닫고, 부활로써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



¹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²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³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⁴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⁵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⁶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 주곤 하였다. ⁷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⁸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 오던 대로 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⁹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¹⁰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¹¹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¹²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¹³ 그러자 군중은 거둑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¹⁴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¹⁵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¹⁶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¹⁷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¹⁸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¹⁹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²⁰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겔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



1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누구에게 넘겼나요? ①헤로데 ②요셉 ③요한 세례자 ④빌라도	2 군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①하느님의 아들 ②유다인들의 임금 ③세상의 임금 ④세상의 빛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아요. 에 못 박으시오! ①감옥 ②십자가 ③바위 ④총독 관저
4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 대신 누구를 풀어 달라고 청했나요? ①바리새 ②바오로 ③요한 ④유다	5 군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무엇을 씌웠나요? ①왕관 ②가시관 ③수건 ④자주색 천	6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서 자기에게 넘겼다고 생각했나요? ①예수님을 사랑하여 ②예수님을 시기하여 ③예수님을 두려워하여 ④예수님을 만만하게 봐서

핵심 콕콕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운 순간마다 언제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으실 때에도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셨지요. 혹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느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나의 이런 모습을 반성하며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합시다. ✱

- +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요.
- +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쳐요.

우리는 오늘부터 가톨릭 교회의 가장
거룩하고 핵심이 되는 ‘성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주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서 환영받고, 배신당하고, 재판받고, 십자
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사건을 집중
적으로 기억하게끔 이끌어 줍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복음 안에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지만, 오늘은 ‘배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분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때가 아니냐는 질문을 듣고,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 자신도 붙잡혀 가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나서, 베드로는 후회스럽고 부끄러워서 펄펄 울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
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번 한 주를 어떻
게 살면 좋을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
면 좋겠습니다. ※

1.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른다는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2.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의 울음소리
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
지 생각해 봅시다.

4.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를 보셨다면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을지 생각해 보아요

언제나 자비하신 주님,

아멘.



다니엘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게 신기했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야.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환호성이라 할 수 있지. 일종의 '만세!' 같은 거랄까?



다니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수난을 받고 죽으러 가시는 거였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른 걸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돌아가시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 그런데 이를 모르는 군중들은 나뭇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던 거야. 그래서 오늘날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성지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노래를 부른단다.



다니엘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만 호산나를 노래하는 건지 궁금해요.

노노노노!! 미사 때도 하잖아~



다니엘

아! '거룩하시도다' 할 때요!

그렇지!!!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 무렵 ³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³⁷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³⁸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³⁹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⁴⁰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⁴¹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⁴²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⁴³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¹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²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³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개종 #코르넬리우스 #만민의 주님 #하느님께 선택받은 이 #구원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iN 사전 뉴스 지도 영화 뮤직 책 웹툰



그리스도의 세례
프란치스코 바치아카, 1520년, 나무에 템페라, 빈 미술 아카데미, 빈, 오스트리아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 코르넬리우스

사도행전 10장에는 코르넬리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의 백인대장으로 신심이 깊고 하느님을 경외하던 이였습니다. 백인대장이라는 말은 100인으로 구성된 부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환시를 보게 되고, 베드로 사도와 만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때 함께 있던 이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이스라엘을 넘어 다른 민족에게도 전해졌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민의 주님

앞서 베드로 사도가 코르넬리우스를 받아들인 사건이 그리스도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령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느님께 선택받은 모든 이에게 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신 그분께 늘 감사드리며, 우리가 받은 '신앙'이라는 선물을 잘 간직하도록 해 봅시다. 이 선물을 잘 간직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요한 20,1-9



복음

¹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²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³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⁴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⁵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⁶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⁷ 예수님의 얼굴을 찢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⁸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⁹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때는 언제였나요? ①안식일 ②주간 첫날 ③안식일 전날 ④주간 이튿날	2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①마리아 ②마리아 막달레나 ③토마스 ④필립보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①시몬 베드로 ②토마스 ③필립보 ④야고보
4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을 막은 무언가가 치워진 것을 보고 달려가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①토끼 ②돌 ③수건 ④비석	5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본 것은 무엇인가요? ①황금 ②성작 ③아마포 ④향유	6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나요? ①성탄 ②세례 ③부활 ④승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요. 우리도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느라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나눌 수 있도록 해 보아요! ✱

- + 주변 사람들과 함께 부활 인사를 나누어요.
- +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부활절 달걀을 꾸며요.

3월 31일 주님 부활 대축일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게 느껴지나요? 만약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너무 어둡고 무섭지 않을까요? ‘부활’은 단순히 죽고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이 ‘희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
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활 시기’라
니다.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
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고통을
받으셨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랑 함
께할게! 너는 꼭 해낼 수 있어!”라고 말씀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卐

글 임현택(토마스) 신부

1. 희망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더 빛나는 것 같나요?
2. 내 삶에서 어둠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나요?
3. 그때 나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4. 부활 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

아멘.



가브리엘라

신부님, 미사 때 왜 연기를 피우는 건가요? 냄새 때문에 미사 내내 기침이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ㅠ ㅠ

그건 '연기를 피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분향'이라고 해야 해.



가브리엘라

분향이요?

맞아. 분향은 성경에서 뜻하는 대로 공경과 기도를 표현한단다. 특히 미사의 여러 때에 분향을 할 수 있는데, 큰 축일 때 주로 분향하지.



가브리엘라

어! 그래서 미사 때마다 분향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때 하는 건가 봐요.



정답!!



위의 QR 코드 이미지를 스캔하면 《소년》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됩니다.
성당 다니면서 궁금했던 질문을 남겨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게요!

교회를 빛낸 성인

17화_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송현철 지음





성인명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 7월 22일

신분 신약 인물, 예수님의 제자

활동 시기 1세기경

같은 이름 마들렌, 메리, 미리암

호칭 사도들을 위한 사도





막달레나는 성녀가 살던 지역명이라고 해요.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 뒤나 앞에 지역명을 붙여서 불렀던 것이지요.



성녀는 일곱 마귀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 주셨어요.



그 뒤 성녀는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과 동행하며 그들의 시중을 들었어요(루카 8,2-3 참조).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실 때도 그 맞은
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마태 27,61; 마르
15,47 참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곁을 지켰어요(마태 27,56; 마르 15,40;
요한 19,25 참조).



안식일 다음 날, 주간 첫날 이른 아침이 되자 성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료를 들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마태 28,1-2; 마르 16,1-4; 루카 24,1-3; 요한 20,1-2 참조).



성녀가 무덤 밖 동산에서 슬피 울 때, 누군가 왜 울고 있냐고 물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녀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녀에게 다른 제자들에게도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요한 20,11-18 참조).



이처럼 성녀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림으로써, 그들이 용기를 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영예로운 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동안 성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앞서 얘기했듯,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대대 그레고리오 1세 성인 교황이 성경 속 다른 인물과 성녀를 동일 인물로 잘못 해석하여, 오랜 세월 동안 오해를 받았지요. 이런 영향으로 많은 예술가가 성녀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1세기부터 기념해 온 성녀를 위한 기념일(7월 22일)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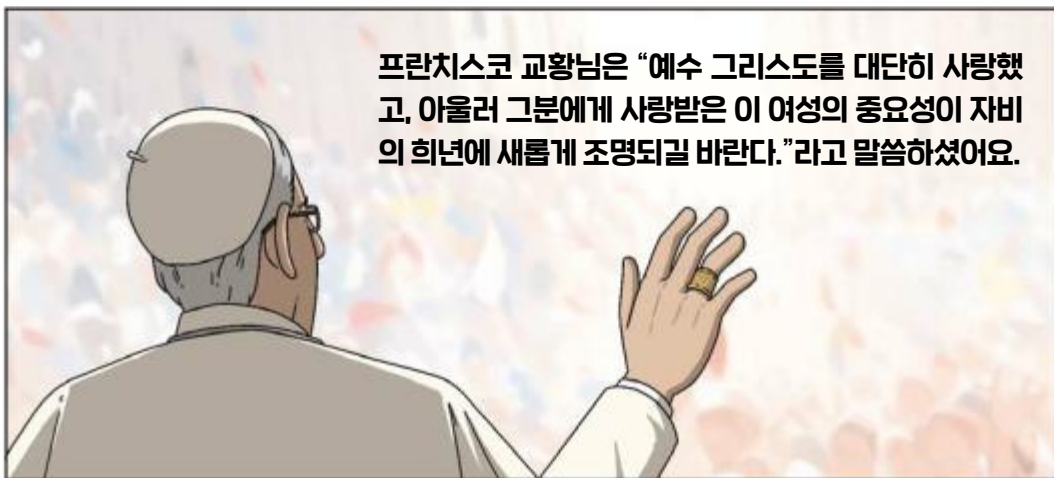
2016년 6월 3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때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
교령 발표가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인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의
의무 기념일을 축일로
승격하는 내용이었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사랑했
고, 아울러 그분에게 사랑받은 이 여성의 중요성이 자비
의 희년에 새롭게 조명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황님은
“이 결정은 여성의 존엄성과 새로운 복음화,
그리고 하느님 자비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성녀는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는 호칭도 받았어요.



이 호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전례 개혁과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성녀의
행적과 역할을 정리하여
부여했다고 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주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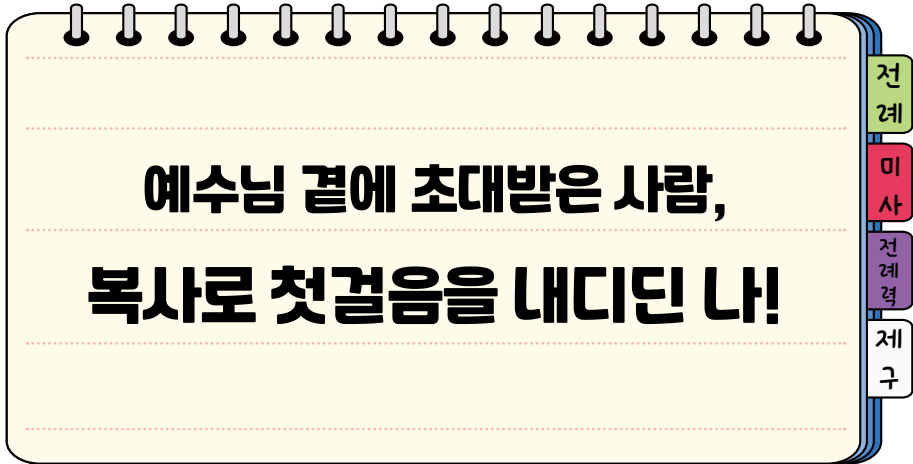
네!
정말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았어요!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
한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여성에게 많은 것이
금기시되던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은 큰 용기와 믿음이 없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거
예요.

우리도 성녀처럼 용기를 내어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지닌 신앙인이 되기로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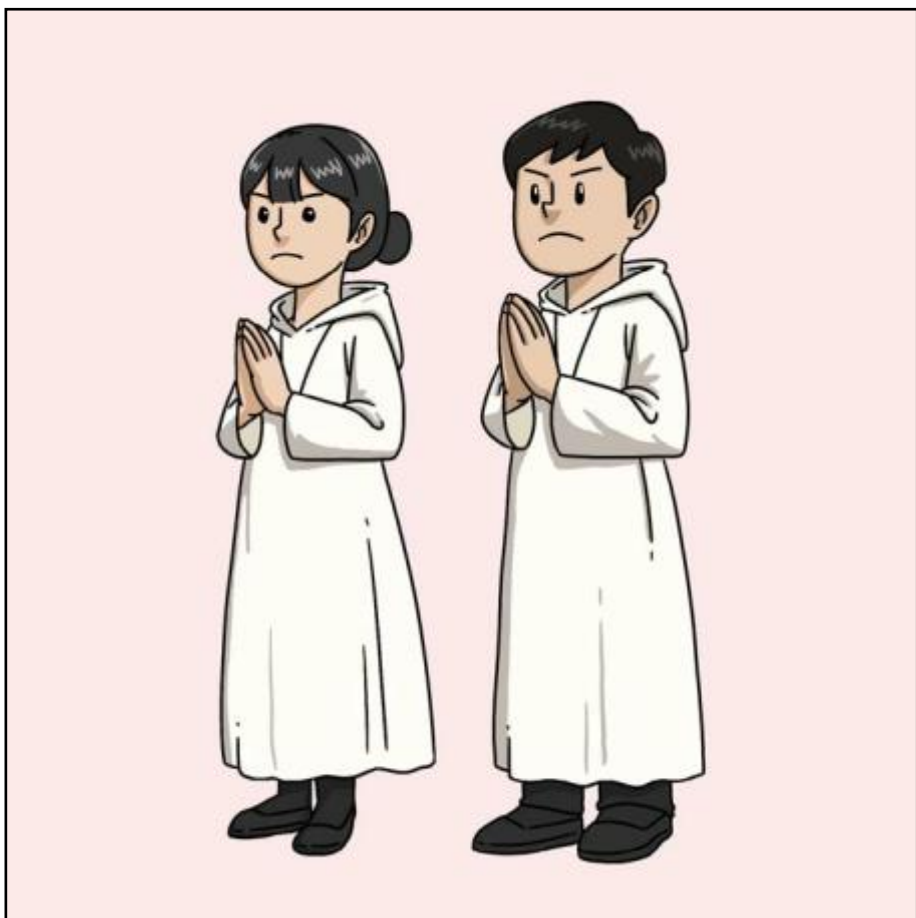
NOTE

전례에서 주례자(주교, 사제, 부제)를 도와 봉사하는 이들을 가리켜 흔히 ‘복사(服事)’라고 불러요. 복사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봉사하도록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 초대받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처럼 훌륭한 봉사자인 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지니고 선한 마음과 반듯한 자세를 갖추어야 해요.

이러한 태도는 복사를 서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미사 때 함께하는 다른 신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복사로서 꼭 갖추어야 할 마음과 자세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1. 용기

처음 입어 보는 복사복이나 제대 위에서 하는 동작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미사 때 실수를 저질러서 창피를 당하게 될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실 때마다 용기를 내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셨어요. 떨리는 마음이나 어색하고 부끄러운 감정은 잠시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맡은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자발적인 마음

언제나 기쁘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지요? 친구들도 처음에 복사를 시작할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새벽 미사 때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시험 기간에 복사를 서는 것이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단에서 봉사하기 위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편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3. 시간 지키기

복사 서는 날에는,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게 성당에 도착해서 차분히 준비해야 해요.

그러니 미사 시작 전 급하게 뛰어와서 허둥지둥 준비하기보다는, 미사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예수님께 잠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 시간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여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4. 반듯한 자세



복사는 예수님 곁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깔끔하고 정리 정돈된 자세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사로 봉사할 때는 항상 깨끗한 복사복을 입고 두 손을 반듯하게 모으며 단정한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복사복 안에 입은 옷도 단정하고 말끔해야 합니다.

5. 침묵

제대에서 봉사할 때는 함께 복사 서는 친구와 잡담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신부님을 정성껏 도울 수 있고, 다른 신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침묵은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사를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



축복을 내리시는 성부, 그리고 천사들

글 · 도판 자료 박혜원 소피아(화가)

한스 멤링(Hans Memling, 1430/1440~1494년)은 15세기 당시 북유럽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인 벨기에 브뤼헤를 기점으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그는 매우 정교하고 극사실적인 표현과 상징을 사용한 은유적인 묘사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그린다면, 삼위일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는 것이 더욱 명확할 텐데, 이 화가는 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그림 속 숨은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더욱 진하고 깊은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플랑드르 회화를 볼 때, 화가가 조심스럽고 귀하게 숨겨 둔 진실을 찾아보아요. 이 진실을 찾게 된다면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한스 멤링의 작품을 만나러 가 볼까요?

아름다운 황금의 그림

서구에서 5~15세기를 거쳐 발달한 중세 시대는 하느님이 중심이 된 시대로, 중세인들은 신비롭고 고귀한 천상계를 표현하는 색이 황금색이라고 생각했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그림은 <노래하는 천사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들과 있는 성부>입니다. 이 그림에는 세상의 어둠을 거두어 낸 먹구름 사이로 천상의 빛으로 눈부신 황금빛 공간이 놀라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앙에는 온 우주를 군림하시는 왕관을 쓴 성부가 화려한 브로치로 여민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손에는 우주를 나타내는 수정 구슬에 십자가가 달린 왕홀을 들고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우주를 나타내는 지구본과 십자가는 성부의 신성하고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입니다. 위엄과 동시에 한없이 인자한 모습을 하신 성부는 신중하면서도 확고한 모습으로 온 인류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고, 성부의 양편으로 노래 부르는 천사들이 3명씩 있습니다. 양측 두 패널에는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어여쁜 천사들이 현악, 금관의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부이신 하느님의 모습이 너무 젊어 보여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나요? 이 궁금중의 답은 바로 성부의 붉은 망토를 여미고 있는 브로치에 있습니다. 브로치에 박힌 세 개의 보석이 바로 '삼위일체'를 의미하거든요. 삼위일체의 신비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으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 각각 위격을 지니면서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림 속에 그려진 성부는 하느님이면서 그리스도이면서 성령이시기 때문에 젊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지요.



노래하는 천사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들과 있는 성부

1483~1494년, 한스 멤링, 목판에 유채, 금, 안트베르펜 왕립 미술관, 안트베르펜, 벨기에

플랑드르 회화의 대가

한스 멤링은 일명 '브뤼헤 대표 화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15세기 플랑드르 미술의 걸작 중 하나인 <양에 대한 경배>를 그린 반 에이크 형제보다 높았지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노래하는 천사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들과 있는 성부>를 스페인에서 의뢰받아 거대한 제단화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플랑드르 회화가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으며, 비과학적인 표현이라고 여겨 '원시적인 플랑드르 회화'라고 부르며 평가절하하는 견해도 있었어요. 이는 플랑드르 회화가 겉으로 드러난 외양보다는 그 안의 '정신'을 표현하고자 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멤링의 작품 속 인물들은 마치 감정을 속으로 삼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무표정하거나 무덤덤해 보이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같은 '절제'는 화가의 표현이 미숙한 게 아니라 오히려 희로애락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내면화하였기 때문입니다.

한스 멤링의 빼어나고 섬세한 인물 묘사는 두 번째 작품인 <나이 든 여인의 초상>에서 잘 드러납니다. 35센티미터에 폭이 29센티미터에 이르는 작은 그림이지만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그림 속 발코니 난간 너머로 멀리 원경에는 굽이 굽이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섬세하고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단순하면서도 귀한 하늘색 민크 털 카라가 달린 멋진 복장을 한 나이 지긋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난간 위에 두 손을 살포시 얹은 채 자신만의 깊은 생각에 잠겨 꿈을 꾸는 듯 보입니다. 얇은 입술을 꼭 다문 모습에서는 고집스러움과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 세상의 온갖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나이 든 여인의 초상

1480년경, 한스 멤링, 목판에 유채, 루브르 박물관, 파리, 프랑스

강인함이지요. 여인의 맑고 중후한 얼굴에서는 지난날에 대한 회한, 그리움과 함께 동시에 은근한 흡족감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올곧게 산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이겠지요.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천사

다 음 그림은 <올리브 가지를 든 천사>입니다. 높이가 16센티미터에 폭이 10센티미터에 이르는 보석 같은 작품입니다. 눈부신 레몬 빛 천상계를 배경으로 순백의 복장을 한 천사가 조심스레 우측으로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리브 가지를 든 천사

1475~1480년경, 한스 멤링, 목판에 유채, 루브르 박물관, 파리, 프랑스

천사는 왼손을 다소곳이 가슴 위에 얹고, 오른손에는 기다랗고 곧은 올리브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올리브 가지는 바로 ‘기쁜 소식’, 천상이 약속한 구원의 희망찬 약속입니다. 천상에서 내려와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의 겸손하고 소탈한 모습이 정말 어여쁩니다. 고귀한 존재는 자신을 뽐내지 않습니다. 그 은은한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산할 뿐이지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천상계 축복의 장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인지요. 지금, 이 순간 황금빛 공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축복을 내리시는 하느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보내도록 해요! ✨

박혜원 선생님은 벨기에 브뤼셀 리브르 대학교에서 서양 미술사를 전공하고, 브뤼셀 왕립 미술 학교에서는 판화를 전공 하셨습니다.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셨고, 현재는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서양 미술사를 강의하십니다. 지으신 책으로는 《매혹과 영성의 미술관》, 《그림 속 음악 산책》 등이 있습니다.



오늘 친구에게 전화를 받은
아이의 몸시 슬펐습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냈던 날들을 생각하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아이는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또
뭘 잘못했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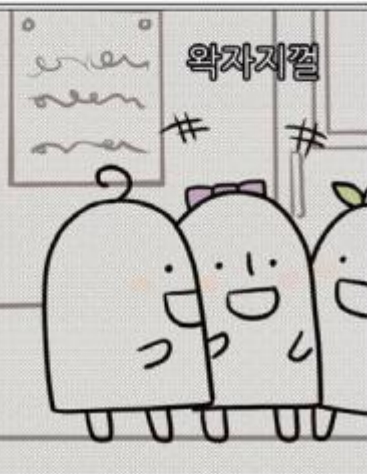


갑자기 친구의 마음이
변한 걸까?

학교 가기
싫어.....



다녀오겠습니다.





점심 안 먹었어?

허겁지겁

네.

혼자 먹기 싫어서
그냥 굶었어요.

저런…….
아침도 안 먹고 갔는데
하루 종일 힘들었겠네.

웬만하면
먹지 그랬어?

쉬는 시간에도 내내 자는 척
하면서 엎드려 있었는데

제가 혼자 밥 먹고 있는 모습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워요…….

그전에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을 몰라서
갈등도 많고,
왕따도 당했었지만

이제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결과가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저는 왜 항상
이 모양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문제는 항상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너는 그동안 많이 발전했고,
지금도 나아지고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친구와 그렇게 된 건
엄마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

물론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고

앞으로 너랑 잘 맞는 친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거야.

너에게 집중해.

너는 너만의
방법으로 살면 돼.

토닥토닥

일본에서 존경받는 이큐 스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스님은 편지 한 통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이 편지를 열어 보거라.

조금 어려울 때
열어 봐서는 안 된다.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
그때 열어 보거라!

세월이 흐른 뒤, 사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큐 스님의 편지를
열어 볼 때가 된 것 같소.

승려들은 기대를 안고
편지를 열어 보았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이큐 스님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받아야 할 일은 받고,

치러야 할 일은
치러야 한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은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는 건
이미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는 의미이니까요.

그러니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한계선을
미리 긋지 말고,
용기를 가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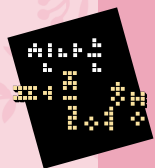


가슴을 펴고 마음껏 웃고
실컷 떠들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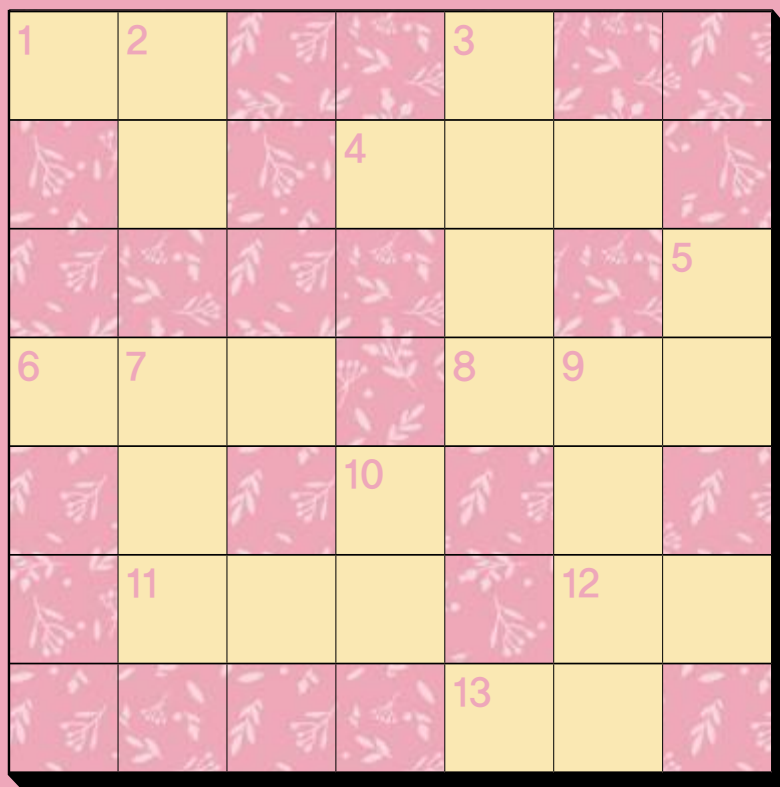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요한 14,1)



가로 보고 세로 보며

퍼즐 맞춰 보시!



‘신나는 퍼즐 여행’의 정답은
78쪽에서 알려 드립니다!
함께 풀어 보시다!

가로

1. 성경에서 40일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시기를 보냅니다. (2쪽 참고)
4.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 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16쪽 참고)
6.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도시로,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임금과 백성들은 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23쪽 참고)
8. ‘아마’라는 섬유로 만든 직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천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48쪽 참고)
11.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뜻합니다. 십계명의 계명 중 하나로, 하느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쪽 참고)
12.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이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8쪽 참고)
13. “나는 나와 너희 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4쪽 참고)

세로

2. 누군가를 순순히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을 배우셨습니다.” (34쪽 참고)
3. 이란 민족이 세운 고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배 생활을 끝낸 이는 제국의 키루스 임금입니다. (22쪽 참고)
5.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합니다.” (16쪽 참고)
7.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수석 사제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 이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에게 넘겼다.” (42쪽 참고)
9. 천을 벌에 쪼어 희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12쪽 참고)
10. “나는 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빵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40쪽 참고) ✱



2024년 부활 호 정답

사	순			페		
	종		부	르	심	
				시		선
바	빌	론		아	마	포
	라		매		전	
	도	독	질		장	사
				사	이	



발행인	정순택
편집 겸 인쇄인	김대영
편집	박다숨, 김소정
디자인	송현철
본문 집필	심재현 신부, 임현택 신부, 강병권, 안송이
일러스트	송현철, 김준희, 이윤진

소년 2024년 부활 호(통권 727호)

2024년 2월 14일 발행

1960년 1월 1일 창간

1964년 1월 1일 등록(서울중, 사00080호)

성경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서울시 중구 중림로 27(중림동)
가톨릭출판사 1층 《소년》 편집부

- 대표 전화 1544-1886
- 편집 전화 02-6365-1864
- 후원 문의 02-6365-1867
- 이메일 sonyeon@catholicbook.kr
-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소년》은 도서 잡지 윤리 실천 강령을 지킵니다.

알립니다



《소년》은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QR 코드를 찍어
확인해 보세요! :)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그리스도의 은총은 교회로 흐른다.”

예수의 최후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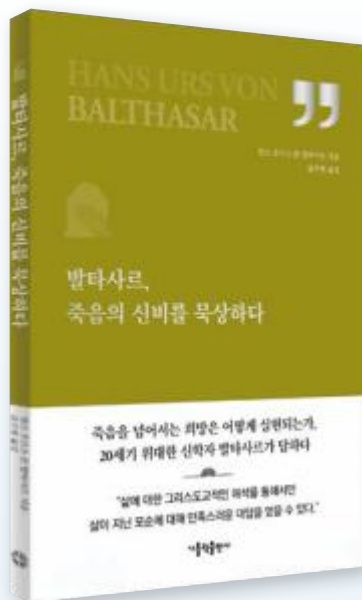
가상칠언에 숨겨진
칠성사의 비밀을 이야기하다!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가톨릭 교회의 칠성사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일곱 가지 말씀을 통해 칠성사의 의미를 새로이 발견하고, 그 말씀이 현재 우리 곁에 어떻게 머무르는지 생생히 느껴 보세요.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발타사르, 죽음의 신비를 묵상하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한편으로 영원을 갈망합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역설에 답하기 위해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고찰하며 죽음의 신비를 탐구합니다. 이 책을 통해 죽음 속에서 인생의 모순을 넘어서는 참된 희망의 빛을 발견해 보세요.



예수의 최후 기도 아드리엔 폰 슈파이어 지음 | 문재상 옮김

발타사르, 죽음의 신비를 묵상하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윤주현 옮김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볼 수 있는
무절제한 모습에 휘둘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은 ‘중용’이라는 광채를 띠게 될 것입니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중용’의 가치

딱! 알맞게 살아가는 법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딱 알맞게 살아가기 위해
안셀름 그린 신부는 우리에게
내면의 중심을 잡고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용’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딱! 알맞게 살아가는 법

안셀름 그린 지음 | 최용호 옮김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